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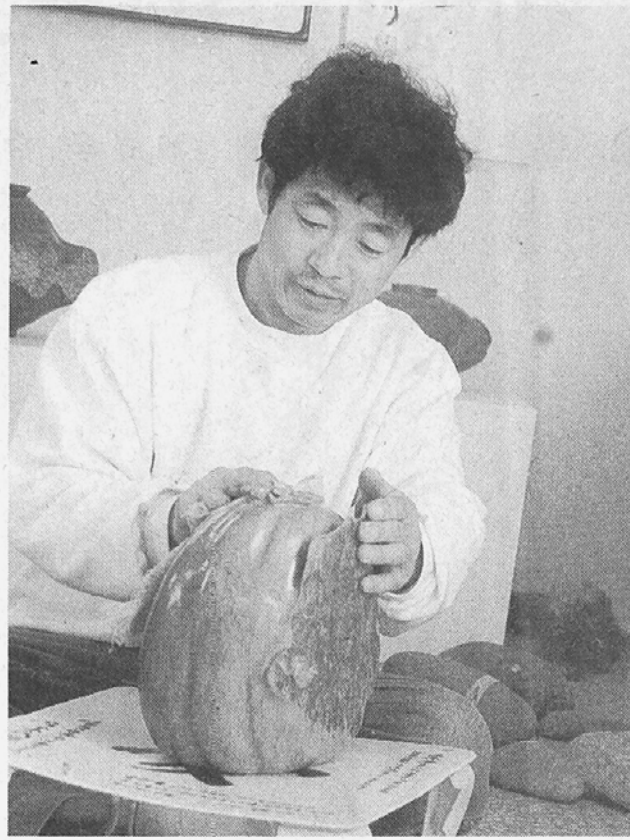
# 돌속에 돌 빼내는 일 내 작업

강원도 원풍에서 14km를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한 천도리는 맑은 곳이다. 물이 맑고 바람과 하늘이 맑으며 사 람들이 맑다. 거기다 돌을 다듬어 부처 님을 만들고 비누, 화병, 술병을 만드 는 김봉준씨가 있어서 천도리는 더욱 맑다.

“돌을 쪼다가 도를 통한 사람”  
충광스님과 소설가 이외수씨, 가수 이남이씨가 찾아 준 김봉준씨의 별명 이다.

나면 불 보살님의 얘기 소리가 들리고 거북의 움직임, 꽃이 화사하게 담긴 꽃 병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일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더러는 몇 달이 또 더러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가져다 둔 돌덩이를 자르 고 깎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 번 시작한 작품에 생사를 건 정성을 들인다. 마음으로 돌은 목소리와 마음 으로 본 돌 속의 형상이 저지러지 않 게 하기 위해서다. 그가 천도리에 살게



십화·이기선

## 연기법으로 일체평등 증명

종로 네거리에 수많은 등 불이 밤을 밝힌다. 환한 대낮 같다. 부처님의 등불을 사람 마다 하나씩 헌당하였으니 사바가 극락이다. 산간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도 갖가지 연등으로 세상을 밝히는 천 하제일 금수강산이 연꽃으로 잠얼된다.

이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다. 저토록 가난한 노파도 등불을 밝히고 한없이 가멸한 재벌도 등불을 들었으니-빈자 부자가 일여등(一如燈)을 밝혔으니-이 세상이 평등세계가 되느니라.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부처님은 누구신가. 기비 라국의 왕자이다. 부귀와 영화가 온몸에 드리우고 행복 과 안온이 가슴 가슴에 가득 한 태자였다. 그런데 부처 님은 출가하시어 온갖 고행을 다 겪으시고 궁극에는 깨침을 얻으신 부처님이 되었다. 나 는 일체를 다 아는 자이고 또 한 나는 일체를 다 이긴 자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아셨고 무엇을 이긴 자인 가.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다 아셨다. 연기법의 실체를 깨 치신 것이 다 아는 것이고, 마음의 오묘함 마음의 욕망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이 이긴 자의 목소리이다.

### 마음속 욕망을 버려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 물리력을 조금 이해 할 뿐이다. 그러므로 식육·색욕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즐김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을 할 줄 알면 다 알았다 고 뽐내고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다고 할 때도 정복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은 형이상 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상세계의 원리를 깨친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 속물 적인 근심에 사로잡힌 인간 이 지(知)라고 하는것 승(勝)

했다고 하는 것은 형이하학 적인 세상에 함몰된 상황 을 의미할 뿐이다.

부처님이 깨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평등화이다. 인간은 계급화하는 사고의식에서 생 명은 평등성이라고 깨쳐 아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25

부처님

악한 사람은 악육강식이 상 식의 길이라고 주장하게 된 다면 인간이 참깨 설 자리 를 일탈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실상은 하나같이 삶의 권 리를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다 고 직관하셨고 이 삶의 한 복 판에 모든 여래의 생명체가 있음을 깨치신 것이다. 그러므 로 못 생명이 종과 류를 달리 하고 있어도 생명이 일여평등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서로 양보하는 삼 추구

우리를 세계가 여러 형태 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의식 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주의적 사고의식으로 살 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복의 식이 강하게 발동하는 것이 다. 인본주의에 중심을 두고 살려는 인간은 인간호혜평등의 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여타의 다른 생명에게도 있다고 관계지을 수 있는 이량이 나 도량을 키워 나간다면 생명

사랑의 믿음으로 전이될 것 이다. 이렇게 전이성숙하게 하려는 의식이 아뢰야식의 진면이다. 아뢰야식의 진면은 무명 삼독을 광명, 반야로 전 환시키려는 환원적 발동에서 부터 가능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산하대지에 위치한 사찰, 거리에 등불을 밝히고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리고 예찬 노래하는 것은 바로 무명삼독을 완전히 환원시켜 반야광명으로 맞이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등불만 환히 대낮처럼 밝히고 그 속에 의식의 변화, 사고의 환원이 없다면 눈어 두문 사람이 등불을 밝히고 알아볼 거니는 것과 진배 없 다. 환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비로광명을 밝히는 것 은 본래 청정한 마음이 깨침 의 마음으로 환치하는 법회 인 것이다. 부처님 오는 등 밝히고 마음 밝히는 철학적 사고를 주신 초파일 정달 경 하하고 경축드립니다.

### 오신평 예찬 반야의 등 켜자

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 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계급화, 차별화하려고 한다. 이 계급 화, 차별화는 자기는 남보다 다르다고 하는 선민의식에서 비롯하여 거기야 신권의식을 갖는 것이다.

인도 교대 사상가·종교가 들은 선민적 신본주의에 의 거하여 특수한 계급사회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부처 님은 인본주의의 사고의식을 절대화하여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상하가 있을 수 없고 고귀하천이 있을 수 없다고 연기법으로 증명하신 것이다. 생명이 신비한 것이다. 무명 한 종생의 눈으로 생명을 한 번 깊이 관찰해 본다면 신이 하고 미묘한 삶의 방법을 갖 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종생은 이러한 생명의 실상을 건너보려는 생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마구 살고 있다. 회생봉사해 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을 계급적으로 파

## 산문박의 禪

석공예가 김봉준 씨

“그저 돌 속에 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뿐”이라며 “별명처럼 되라는 짐책이 아니겠느냐”고 말하지만 김씨는 “도를 통한 사람”의 경지를 아는 사람이란 생각은 지울 수 없게 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나무뿌리가 돌 을 뚫고 수맥에 닿아있는 것을 보셨습 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무뿌리가 돌을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님 을 알 수 있습니다.”

김씨는 신중함 어조로 말을 이었다.

된 것도 도화석(桃花石)이 이곳에서만 나기 때문이다.

돌은 이름도 많다. 옥석, 토종석, 난 초석, 월광석... 그 많은 돌의 이름도 결국 김씨의 마음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명(改名)을 해야 한다. 수억갑 을 두고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부처님 이 태어났듯이, 그래서 수많은 이름으 로 범계를 가득 채운 부처님들의 회상 이 아름답듯이.

“내가 나를 잊은 곳에서 그것들을

# “이름내기 맞들이면 我相에 사로잡히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만들기 生死건 정성들여

“생명이 지나가려는데 어찌 돌이 비 켜주지 않겠습니까.”

이름되었 김씨가 도인임을 쉽게 눈 치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 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돌을 다듬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만들고 싶은 소원을 갖고 있을 뿐이다.

### 돌 사랑하는 방법 체득

4대째 돌다듬기 가업을 잇고 있는 김씨는 “돌을 다듬는 일보다 더 중요 한 것은 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 했다. 돌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렇게 생겨먹은 돌덩어리일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부처님과 보살님 혹은 꽃병과 거북이를 볼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렇게 돌 속의 형상이 보이고 그 형상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야 비로소 김씨는 작업을 시작한다.

“처음 돌을 가져다 놓고는 그냥 못 본 체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면 그 돌이 돌이 아니게 됩니다. 부처 님이나 보살님 혹은 거북이나 꽃병으 르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도 다시 못 본 체 합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

조고 다듬는데 돌인줄 자신의 이름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작업실은 날 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고 날마다 거북, 꽃병, 수병, 비누들의 생일날입니다. 완 성이 되면 작업종이든 매일매일이 그 날 하루만큼의 탄생일인 것입니다. 나 의 손에서 원가의 이름을 얻기까지 돌 들은 다만 무명의 씨앗일 뿐입니다.”

김씨는 그 이름없는 씨앗에 뜨거운 예술혼으로 ‘황옥 부처님’ ‘난초석 술 병’ ‘월광석 꽃병’ 등의 새 이름을 얹 어 주는데 보통 한 작품에 수개월 내 지 2~3년가치의 시간을 쏟는다.

그런 철저한 장인정신을 이미 여러 곳에 소문이 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전대통령들의 나관을 도맡 아 새겼으며 제주도를 방문했던 고르 바흐씨도 김씨가 다듬은 나관을 선물 받아 갔다. 요즘도 전직 대통령들이 귀 한 선물을 하기 위해 그에게 주문을 한다.

“이름이 난다는게 뭐 대단한 것입니 까. 이름 내기에 맞들이면 돌 속에서 너무 많은 내가 생겨나서 못습시다. 내 게서 이름을 빼야 비로소 내가 있는 것입니다.”

김씨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 에서 자기를 빼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고 거듭거들 강조했다. 우주에 존재하 는 모든 것은 2등일 수 없다는 김씨는 “똑같은 1등끼리 서로를 방해하지 않 고 사는 곳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자 신의 세계관을 털어 놓기도 한다.

“오히려 인간은 너무 많은 것을 가 져서 2등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기 를 빼내는 작업은 커녕 자꾸 채우기만 하거든요. 그렇게 채우다 보면 점점 더 채워야 하고 그런 와중에 인간세계는 극도로 혼잡해 지는 것입니다. 이미 지 금은 그 위험수위를 넘긴 시기라 생각 합니다.”

###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김씨는 마음 닦는 공부야말로 유치 원생들의 산수보다 쉽다고 잘라 말한 다. 덧셈과 곱셈, 나눗셈은 필요치 않 기 때문이다. 그저 뽀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서 자신을 빼는 것이 마음 닦는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라는 김씨.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빼고 죽음과 삶 머지도

빼버린 곳이라고 정의내린다.

“돌 속에서 돌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 돌 속에서 돌을 빼내는 것이 내 작 업입니다. 쓸데없는 돌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작 품이지요.”

천도리의 맑은 냇물이 굽이도는 곳 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돌을 깎다가 국 화차를 마시고 국화향이 방안을 채우 면 먹을 짝이 산과 달, 학이나 메기를 그리거나 시를 쓰는 김봉준씨. 그는 돌 속의 돌을 빼내다가 자신에게서 자신 을 빼내버린, 그래서 해맑은 웃음만으 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작업실에 걸린 그의 시 한 수에서는 스스로를 빼내버린 사람의 향기가 삶 과 죽음이 뒤섞여 있는 곳까지 흐르고 있다.

내 죽어 제사지낼 때 풍악을 울리거라.  
향불래신 진달래 산국화 꽃아 놓고 덩실덩실 춤추어라.  
내 이 세상에 나왔다가 마음껏 놀다 가노라.

〈원룡=임연태 기자〉

# 소각기의 대중화 시대 선언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소형이동식 간편소각로 개발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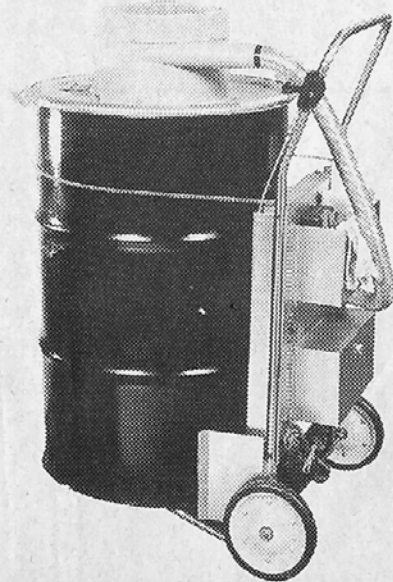
### 소각기의 작동원리 및 순서

- ① 연소드럼에 소각물을 투입한 후, 집진커버를 핸드클램 프로 고정시키고 감시공을 통해 수동 점화시킨다.
- ② 점화후 송풍기를 작동시키면, 원형의 연소드럼 벽을 따 라 공기가 주입되어 고속의 와류를 형성하여 연소에 필 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발생분진을 연소 드럼의 중앙부로 회전상승 시킨다.
- ③ 발생매연은 집진커버를 통과하면서 싸이클론식 원심분 리력에 의해 연소드럼 내에 계속 잔류하며, 이때 유독 성가스의 열분해작용을 유도하게 된다.
- ④ 소각이 완료되면 5~10분간 냉각시킨 후, 소각물을 재투 입하여 몇 차례 반복소각이 가능하며 잔여재는 적당량 이 쌓이면 제거한다.

### 소각기 사양

- 처리용량 : 15 ~ 18kg/hr
- 총 중 량 : 52kg (드럼 34kg 포함)
- 본 체 : Drum Ø 570 x 870H [mm]  
용적 0.22M<sup>3</sup> / 재질 SS41
- 집진커버 : Ø 600 x 200H [mm](SUS 304)
- 송 풍 기 : AXIAL VANE TYPE  
19,000RPM x 0.25HP x 2sets 2.87 / MIN

사찰, 포교당, 은행, 학교, 병원, 가정용 등



### CAN-소각기

미국특허 No. 3791319호  
실용신안출원번호 No. 16362호

- 미국의 CROSSINBOW INC에 의해 개발
- EPA(미국환경보호국)에 의해 공인
- “CAN-소각기”는 독창적인 유체역학적 설계
- 각종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간편하고 신속하 게 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간편소각기’입 니다.
- 가정용 전원이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손쉽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연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으므로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청결한 환경을 유지

### 소각시 주의사항

- 수분이 많은 것은 건조 후 소각하십시오.
- 연소시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연소시 드럼본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 소각 후 약 10분 후에 개폐하십시오.

### “연세대 보건과학 연구소에서 성능 입증”

대상 폐기물(100%)별 배기가스 성분의 평균농도

폐기물종류 측정대상물	종이	페스류	플라스틱 필름	고무	사투실 쓰레기	기름 갈래	기준치
평균NOx농도	37	160	52	176	100	180	200(ppm)
평균SOx농도	79	250	15	119	20	76	300(ppm)
평균CO농도	400	350	*100	550	250	58	600(ppm)
평균O <sub>2</sub> 농도	17.0	12.0	17.0	7.0	13.0	10.4	(%)
평균CO <sub>2</sub> 농도	3.0	7.5	3.2	13.2	6.9	10.2	(%)
분진농도	91.0	80.1	67.5	41.1	36.9	91.0	100mg/sm <sup>3</sup>
탁 도	0-1	0	0	*1-3	0-1	0-1	2도

-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하십시오.
- CO, SO<sup>2</sup> 및 분진농도는 O<sup>2</sup> 12%일 때의 기준임.
- 감중율(전여해/초기폐기물량)은 3-5%
- 이 성능시험은 1995년 2월 2일 ‘연세대 보건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함.

南陽 통산부 생산기술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07-22 흥판·박트코리아  
TBI사업 지원업체 ☎ 679-2799 675-5805 785-1362